

## 〈채생기우(蔡生奇遇)〉와 〈장수과전(張守果傳)〉의 비교

- 인물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

강혜규\*

- I. 서론
- II. <채생기우>와 <장수과전>의 주인공 비교
- III. 두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식
- IV. 결론

### <국문초록>

<채생기우>의 김령과 <장수과전>의 류순정이 비상한 두뇌로 단계적인 설득 전략을 통해 몰락 양반을 좌지우지하는 양상은, 중세시대에 중시되었던 체면과 윤리가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생존 능력으로 합리성과 설득력이 대두했음을 보여준다. 김령의 경우 딸의 안위를 위해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고, 류순정의 경우 공권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그의 사기에 많은 이들이 공조하게 한다. 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완고하게 과거의 규범을 고수하거나 욕망을 비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선악과 하늘의 규범을 넘어 변화하는 자본과 욕망의 시대에 적응한 새로운 주인공으로 형상화된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가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는 신분제가 흔들리고 자본과 욕망이 중세의 체면과 윤리 가치를 흔드는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된 시기에 작가 이현기는 여러 전형적 인물상을 통해 욕망의 긍정과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고 자유와 행복을 제약하는 규범을 비판하며 상호교환으로 변화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조교수

핵심어: 이현기, 『기리총화』, <채생기우>, <장수과전>, 결방연이팔낭자

## 1. 서론

조선후기 야담 작가 이현기(李玄綺, 1796~1846)가 쓴 『기리총화(綺里叢話)』에 수록된 <채생기우(蔡生奇遇)><sup>1)</sup>의 주인공 김령(金令)과 <장수과전(張守果傳)>의 주인공 류순정(柳順汀)은 상대를 설득해 자신의 생각대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인물의 빼어난 설득 전략은 몰락 양반을 회화화하고 우롱할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생존에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두 작품에 대해 선행연구는 각 작품의 서사구조와 주제의식을 살핀 바 있으나, 두 작품을 함께 논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생기우>의 주제의식에 대해, 이신성은 ‘명분을 벗어나 현실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상’을 묘사해 당시 사회의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보았고,<sup>2)</sup> 장영희는 신분제의 축이었던 몰락 양반과 부유한 역관에 의해 신분제가 붕괴되는 현실의 한 단면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또 최광석은 이 작품이 조선후기 사회가 안고 있는 재가, 신분 갈등, 가치관 대립 등의 제반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그 해결 방향까지 제시했다고 하였다.<sup>4)</sup> 이승은은 작가가 ‘물질적 공세 앞에서 인간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지키는 것이 옳은가’를 묻고 있다고 보았다.<sup>5)</sup> <장수과전>의 주제의식에 대해 정솔미는 이 작품이 ‘소인배들로 가득한 세계를 묘사하는 한편 이들이 줄릴해질 수밖에 없

1) 이 작품은 『靑邱野談』에 수록된 「結芳緣二八娘子」로 알려져 있고, 이우성·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창비, 2018)에는 「김령」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破睡圖』에도 실려 있다. 다른 이본보다 『綺里叢話』가 앞서므로, 이현기 작의 『기리총화』가 원본이다. 이에 본고에는 『기리총화』의 원제를 따라 「蔡生奇遇」로 지칭하기로 한다.

2) 이신성, 「한문단편 「金令」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 한국한문학회, 1978, 226면.

3) 장영희, 「<결방연이팔낭자(結芳緣二八娘子)>의 대립구도와 그 의미」,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008, 968면.

4) 최광석, 「<結芳緣二八娘子>의 구조와 시대적 의미」, 『문화와 융합』 18, 한국문화융합학회, 1997, 23면.

5) 이승은, 「『綺里叢話』 소재 각화의 서사기법 다변화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 제22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7, 136면.

는 배경에 비정한 사회와 속물적 세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sup>6)</sup> 임형택은 이 두 작품을 한문단편의 최우수작으로 손꼽으면서, 여러모로 흥미롭게 대비될 작품이라 서술하였다. 특히 두 작품은 '서사의 관건'이라고 할 문제를 설득력 있게 풀어 가는 기법에서 작가의 탁월한 솜씨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sup>7)</sup> 이승현은 『기리총화』 중 <채생기우>와 <장수과전>이 특히 이현기가 이룩한 소설적 성취를 잘 드러낸다고 한 바 있다.<sup>8)</sup> 이 두 작품은 작가의 시대와 인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며, 형식적으로 높은 문예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두 작품의 주인공과 작가의식을 다루고자 한다. 작가 이현기가 두 작품에서 몰락양반을 설득하는 서사적 관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작품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령과 류순정이라는 기존의 소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주인공을 통해, 변화하는 세대에서 어떻게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 II. <채생기우>와 <장수과전>의 주인공 비교

<채생기우>는 중인인 김령이 청상과부가 된 딸을 몰락 양반 채노인의 아들 채생과 인연을 맺게 한 후, 파생되는 채노인의 분노와 거부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결국 두 집안이 사돈의 연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서사적 긴장은 남녀의 사랑이나 기이한 인연보다, 완고한 채노인과 김령의 가치관 대결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채노인은 낡은 시대의 전통과 체면을 지키는 인물이고, 김령은 융통성이 있고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다. 두 인물은 각각의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으로, 이들의 대결은 몰락 양

6) 정술미, 「『張守果傳』의 형식적 특징과 주제의식」,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168면.

7)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 - 동아시아 보편어문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21-23면.; 임형택 편, 『한문 서사의 영토』 2, 태학사, 344면.

8) 이승현, 「『綺里叢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반 계층이 고집하는 허세와 윤리가 중인 계층의 부유함과 합리적 사고에 굴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채노인은 작품 초반에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지만, 점차 김령과 친분이 깊어지면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욕망에 대해 긍정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입체적 인물이다.

<장수과전>은 몰락 양반 장기공(張奇功)을 류순정이 파멸로 몰아가는 내용으로, 작품 전반에 몰락양반에 대한 풍자 의식이 나타나 있다. 류순정은 장생이 지키는 과수원에 귀신인 척하고 들어가 과일을 훔쳐 가거나, 중매를 해주겠다고 속여 체면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장기공을 괴롭히는 일로 친구 신진황(申晉璜)과 여러 번 다투지만, 어떤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생을 속이는 데 몰두한다. 그 이유는 장생이 타인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대접한 적이 없으며, 허황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내실이 없기 때문이다.<sup>9)</sup> 장생은 스스로 성인에 해당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귀신 장난에 놀라 벌벌 떨고 류순정의 허울뿐인 위로에 자신의 속내를 모두 털어놓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는 출신이 양반이지만, 과수원을 경영하며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탈중세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익 추구에 급급하면서 부귀와 안정을 이기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세 사대부의 전형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sup>10)</sup> 체면과 윤리라는 중세의 규범을 고집한 채노인과 달리, 장기공은 자본의 논리를 익히는 과정에서 주변에게 피해만 입히는 몰염치한 자란고비이자, 여색을 탐하고 줄부름 꿈꾸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sup>11)</sup> 이런 점에서 장생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채노인과는 또

9) “내 알기로 장가 놨은 타고난 성질이 인색하여 해마다 과일을 팔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하니 그의 돈케에는 필시 적지 않은 엽전이 쌓여 있을 거다. 그리고 저의 선산에 딸린 제위전(勞位田)도 있고 소나무도 제법 있는데, 허구한 날 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끼니때가 되면 친지의 집으로 가서 밥을 얻어먹는다는군. 요즘에는 우리를 제 목구멍 치레하는 좋은 밭으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으나. (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 내가 미인계를 써서 저놈의 재물을 몽땅 우리 수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사장(射場)에서 우리가 한번 진탕 먹고 마시는 재원으로 삼고자 한다.” 임형택 편, <장수과전>, 위의 책, 317면. (이하 <장수과전>으로 통일) 정솔미는 류순정이 장생에게 말겨루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가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정솔미, 앞의 논문, 142면 참조.

10) 장기공이 스스로를 성인으로 견주며 허장성세로 가문의 계보를 말하는 대목에서 허위의식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11) “금년에는 천우신조로 곡식이며 과목까지 풍년이 들다니 얼마나 행운인가! 이 나뭇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니 아마도 천 개는 될 것이다. 별래 먹고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제하고도 칠팔백 개는 충분히 딸 터이니, 능금나무 예닐곱 주에 능금 한 개면 동전 한 푼은 받

다른 길을 택한 몰락 양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김령과 류순정 모두 연변이 뛰어나고, 상대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 내어 표면적으로는 그 소망을 먼저 성취해 주려는 면모를 보인다. 김령은 채노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물밑작업을 통해 채노인의 굶주림과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채씨 집안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맞추어 제수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 그는 자신의 내심을 숨기고 채노인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채노인은 점차적으로 김령에게 감복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김령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손수 이를 시행한다.

류순정은 장기공의 허세와 정체를 애초에 간파해내고, 그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간취해 낸다. 장기공은 곤궁한 처지를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연민을 자아내고자 노력하지만, 류순정은 냉정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에 흔들리지 않는다.<sup>12)</sup>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장기공을 생각해주는 양 행세하고, 그의 여색에 대한 욕망을 이루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교묘하게 사기 작전을 전개해 간다.

두 작품은 설득하는 주체가 단계적으로 상대의 거부감과 불신을 회석하고, 자신을 굳게 믿게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상대가 위기에 빠진 뒤 그를 구해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점도 동일하다. 김령은 채노인이 아사 직전에 놓일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시에 등장하여 그를 구제하며 감사와 친밀감을 얻는 전략을 취하고, 류순정은 장기공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를 구해주는 척하면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 특히 흡사한 점은 부귀하고 아름다운 과부가 가난한 양반의 부실로 들어가는 설정이다.<sup>13)</sup> <채생기우>의 김령의 딸을 첩으로 맞는 설

---

졌지. 육륙은 삼십륙에 홀 육륙이라도 10여 관의 돈은 너끈히 얻을 수 있겠구나.” <장수과전> 311면; “저로 말하면 반평생을 헛되이 넘겨 남은 인생도 많지 않거늘, 이번에 한 번 미인을 대하지 못하면 차생에는 영영 그만입니다. 어찌 급무가 아니겠소?” <장수과전> 325~326면 참조.

12) “저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비탄에 잠겨 죽어가고 슬픔에 병든들, 내 무슨 동정심을 일으켜서 빈말로나마 저를 위로할 까닭이 있겠느냐.” <장수과전>, 316면.

13) 제가 화소가 나오는 야담 중에서 <채생기우>의 특징과 위상에 대해서는 김상조,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제가의 양상과 의미』, 『漢文學論集』 4. 근역한문학회, 1986 참조.

정은, <장수과전>에서 장기공을 속이는 미인계로 사용되고 있다. 류순정이 장기공을 속일 미인으로 택한 최랑은 중인 출신의 부자집 딸로 부모를 여의고 과부가 된 여인으로 설정되었다. 김령의 역할을 하여 최랑의 개가를 돕는 이는 중매쟁이 주 할멈이다. 최랑은 장기공을 속이는 과정에서 가난한 양반의 후예의 부실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김령의 딸이 양반인 채생과 인연을 맺게 된 설정과도 부합하는 면모가 있다.<sup>14)</sup>

부귀가의 자제는 안으로 투기하는 본체가 있고, 밖으로 사랑받는 계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고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기 십상인데, 만약 사랑받게 되면 그 부모 형제의 원망이 첩의 몸에 모일 터요, 버림받게 되면 노비와 장취들의 모욕이 첩의 몸에 미치기 마련이라. 이 어찌 옳매인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밝은 소견일 뿐 아니요, 실로 **만고의 정확한 논리**이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 요즘 젊은 여자들이 흔히 귀공자를 좇아 소실이 되는데, 다행히 사랑을 흠뻑 받게 되면 그의 친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몸을 망치는 것을 걱정하면서 서로 달리 탈할 곳이 없어 젊은 소실에게 구박이 돌아가 끝이 없게 될 것이요, 용모가 시들어 저의 미움을 받고 보면 노비들까지 그 뜻을 받들어 만 가지로 비방과 모욕이 따를 것이다. 어찌 이를 경계하지 않으리오.) 저는 오직 양반의 후예로서 가난하여 처도 없는 사람을 원합니다. 의복 음식도 모두 제가 담당하고 거처도 다 저에게 의지하여, 곤궁한 처지에서 감격해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면 서로 간의 정이 틈이 없고 몸과 마음도 하나가 될 것인데 어떻겠습니까?<sup>15)</sup>

괄호 속은 평자의 비평으로, <장수과전>의 비평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한다. 부귀한 과부가 시부모와 남편 및 노복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부귀가의 소실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빈곤한 집을 골라 자신에게 감

14) 김령이 채생을 택한 것은 순전히 운에 의지한 것이었지만, 채생을 데려온 후 성명·문벌·나이 등을 알고서 매우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채생기우>, 16면.

15) “綺紉子弟，內有妬妻，外多嬖姬，一朝眷戀，一朝踈棄。眷戀則其父母兄弟，埋怨妾身，踈棄則其奴婢庄獲，侮辱妾身，此豈纏跡之地也。(非但女子之明見，實是萬古之確論。近日少艾多從貴公子奉巾櫛，幸見溺愛，則其嚴父慈母，爛其子自賊，而無所歸咎，困迫少艾，靡有極涯，色衰而又被反目，則奴婢承其意，詬辱萬端，可不鑑此。) 小侄但願簪紳餘族，貧而無婦者，衣食皆仰于小侄，衽席皆憑于小侄，要得窮途之感，則情愛無間，身心有托，於意云何?” <장수과전>, 505면. 표점과 번역은 같은 책 참조. 이하 동일.

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첩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버려지기 일쑤이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사람들의 원망과 모욕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로라는 세태를 드러내었다. 이는 딸 가진 부모라면 너나없이 재물을 우선시하는 데다 젊은이를 좋아하는 당시 세태<sup>16)</sup>에 평자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 재물 욕심에 눈이 멀어 체면을 돌아보지 않는 장수과가 회화화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작가는 욕망을 긍정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재물보다 인간관계에서의 인정과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타인에게 보장받는 것이다.

한편 <채생기우>의 김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설득 과정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 채노인이 김령을 처음 불러 큰소리로 비난할 때에도, “구태여 남의 힘을 지적해서 큰 소리로 들추어낼 까닭이야 없지 않소”라 하며, 남의 시선을 끌지 않을까 주의하는 신중한 면모를 보인다. 그는 채노인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하고 재물을 보내거나, 채생이 김령의 집을 왕래하는 것이 타인의 이목에 구애되니 발을 끊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써,<sup>17)</sup>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는 과부 재가가 사회통념 상 이목을 끌면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행동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장수과전>은 장생을 속이는 작전에 신진황을 제외한 등장인물 대부분이 모의하고 있다. 신진황은 하늘의 도리를 근거로 류순정의 사기를 반대하는 인물이지만, 이를 장수과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사기를 막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sup>18)</sup> 류순정의 사기 행각은 김령과 같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벗인 이정과 이정의 소생, 주할멈 등의 조력자가 개입되고, 급기야 사또까지 그 작전에 참여하게 된다. 즉 공권력까지 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장생에

16) “근래 딸을 둔 집에서는 너나없이 재물을 우선시하는 데다 젊은이를 좋아하지요.” <장수과전>, 318면.

17) “영식이 나의 집을 자주 내왕하는 것이 남의 이목에 매우 구애됩니다. 이제 그만 발을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생기우>, 17면.

18) “너는 이 말을 결코 누설하지 마라. 저놈이 안검의 환을 지을까 걱정되는구나.” “내가 굳이 일을 들춰내서 너를 곤경에 빠뜨리겠지만, 네가 아직 새파란 청년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기에 특히 착한 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이다.” <장수과전>, 317면.

대해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 류순정의 사기 의도에 동의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류순정의 “지금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던 말이나”<sup>20)</sup>라는 말의 ‘착한 사람’은 조건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몰염치한 인간을 봐주거나 그에게 부러 속아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혼내주는 것이 “호쾌한 사나이의 호쾌한 일이 된”<sup>21)</sup>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채노인과 달리 장수과를 파멸로 이끈 이유는 무엇일까? 채노인의 경우 김령과 친분을 맺는 과정에서, 인격의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가정에서의 권위를 내려놓으며 상대의 소망을 들어주고 부(富)에 대한 시각도 180도로 변한다.<sup>22)</sup> 이에 비해 장수과는 몰염치로 인해 류순정과 친분을 맺으면서 그가 왜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그 내막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종일관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 류순정은 사기 작전 내내 장수과에게 어떤 동정과 연민도 보이지 않는다. 김령에게는 과부인 딸의 인연을 맺어주려는 강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채노인에게 조건적 호의를 베푸는 것이 가능했지만, 류순정에게는 심혈을 기울여 장기공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재물까지 도와줄 동기가 털끝만큼도 없었다. 류순정은 자신의 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진황에게

19) “장생은 날마다 사장으로 올라가서 음식상의 찌꺼기를 훑으니 사람들이 아주 귀찮게 여겨서 말투와 얼굴에 나타났다. 그래도 장생은 염치를 무릅쓰고 하루도 빠지 않고 기웃거렸다. 사람들은 이에 또 그를 ‘장비위’라고 새 별명을 지어 불렀다. 대개 던져 주는 음식을 달게 받아먹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류순정은 장생이 아직 오기 전에 여러 사람과 의논을 하였다. “우리가 호의로 날마다 저에게 주식을 대접하거늘, 저는 제집 동산에 과일이 잘 익었는데 한 개도 우리에게 먹어 보라고 가져오는 법이 없으니, 그야말로 몰염치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우 몰려가서 제집 과원의 과일을 마구 따 먹으면 어찌 호쾌한 사나이의 호쾌한 일이 아니랴!” 여럿이 다들 나서서 “좋다. 좋아!”라고 소리쳤다.” <장수과전>, 309면.

20) “今世難做好人.” <장수과전>, 504면.

21) “豈非快人快事麼?” <장수과전>, 502면.

22) “너는 김씨때 규수와 본래 무관한 사이였으나, 어느덧 혼인의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천생 연분이 아니었던들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네가 종내 소원하게 대하여 남의 일생을 망치는 것은 크게 불가하니라. 오늘밤이 매우 길하니 하룻밤 가서 자고 오너라. 오래 머물지는 마라.” <채생기우>, 29면. “채생이 사실대로 아뢰자 채노인은 후회하였으나 부끄러워 책망도 못하였다. 그로부터는 채생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여 하는 대로 따르고 조그만 트집도 잡아 내지 않았다. 자연히 의식과 봉제사 모두 김령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채생기우>, 29면; “편안히 호의호식하며 매일 유희하게 술을 마시게 되자 자못 쾌적함을 느껴,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하면 몸에서 소름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채생기우>, 30면.



장생과 같은 수준의 식견을 가졌다면 조롱하기도 한다.<sup>23)</sup> 선행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타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그 속내를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sup>24)</sup>

### III. 두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식

#### 1. 변통의 필요성 : 욕망과 이성의 조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김령과 류순정은 극을 전개하는 핵심적 인물로 활약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건의 진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상황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곤 한다. 또한 자신감이 있고 타인에게 호감을 사며 언변이 뛰어나고,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능하다. 김령은 중인 출신임에도 변화하는 시대에 역관 일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고, 이를 기반으로 당상관의 위치까지 올라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sup>25)</sup> <채생기우>의 말미에 작가는 “이에 나는 논평하기를, 김역관은 처사를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평을 남기고 있다.<sup>26)</sup> 여기서 “처사”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한다. 김령의 여러 선택과 행동이 모두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류순정의 경우 명문가 출신인데 가산 탕진을 이유로 문과에서 무과로 진로를 바꾸고 있다.<sup>27)</sup>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처신을 바꾸어 성공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지향적, 전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사기를 위해 묘책을 내며, 사람들을 사기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모을 줄 알고 남의 심리를 읽는 데 능하다. 김령과 류순정은 채노인과 장수과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23) “네 식견은 장가 놈과 견줄 만하구나. 내가 무슨 좋은 심보를 가졌다고 심혈을 기울여 저놈을 위해 좋은 인연을 맺어 주고 또 재물까지 도와주겠느냐.” <장수과전>, 316면.

24) 참고로 <장수과전>의 경우 현재 끝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작가인 이현기의 논평을 미처 확인할 수 없다.

25) <장수과전>에는 이와 비슷한 설정의 인물로, 아전 출신에 만금의 재산을 모은 최량의 부친이 있다.

26) “余曰, 金象得可謂善於處事矣.” <채생기우>,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4, 197면. 재인용. 표점과 번역은 『이조한문단편집』 참조. 이하 동일.

27) “父親歷職吏曹典書, 不幸早沒, 因家費盡蕩, 投筆學武, 冀占要路.” <장수과전>, 304면.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줄 알아야 한다. 『주역』 『계사전』에는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라는 구절이 나온다. 궁하면 반드시 변해야 하고, 변한 자만이 통하며,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두 작품에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키는 인물은 성공하고, 변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는 인물은 파멸하는 면모를 보인다. 『기리총화』가 창작된 19세기는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등 변화가 극심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에 사기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현기와 동시대의 인물인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당시 세태에 대해 도량형이 마을마다 달라 사기가 범람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sup>28)</sup> 특히 장기공은 쉽게 사기의 표적이 될 만한 인물이다. 일견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얽치없이 민폐를 끼치는 인물로 사기를 당하기보다 속일 인물에 가까워 보이지만, 바로 그 욕망에 집착하는 성향 때문에 벌거벗고 곱에 갇히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속임수에 빠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과일을 도둑맞고 다치는 사건이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도리어 자신의 감추어둔 욕망을 발설하고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해 류순정의 계약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채노인처럼 윤리와 규범 때문에 욕망을 도외시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장수과처럼 욕망의 실현을 위해 이성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기꾼의 제물이 되고 만다.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 욕망에 대한 태도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욕망을 긍정하는 동시에 그 욕망에 이성적이고 균형적으로 접근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작품 속 이성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김령과 류순정은 선악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령은 채생을 납치하고, 과부인 딸을 재가시키는 등 당시 사회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 류순정의 강도와 사기는 두

28) 丁若鏞, 『應旨論農政疏』, 『定本 與猶堂全書』 卷9. “大抵同律·度·量·衡, 王政之大者也. 今萬斗千斛, 有如人面, 望之相似, 就之皆異. 京外之不均, 鄰邑之不同, 姑捨是, 一邑之內, 有官斗有市斗有里斗, 官斗之中, 官廳司倉不同, 市斗之中, 此虛彼虛不同, 里斗之中, 東村西村不同. 穀無定價, 欺詐多端, 農安得不削乎?” 더하여 사기꾼이 범람하는 시대에 대한 문학적 서사로는 이육(李钰, 1760~1812)의 전을 들 수 있다. 권순공, 『이육 전의 시정세태 묘사와 풍자』, 『한문교육연구』 Vol.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李文奎, 『朝鮮 後期 서울 市井人의 生活相과 새로운 志向 意識』, 『서울학연구』 5,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5 참조.

말할 것 없이 사악한 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김령과 류순정에 이입하여 채노인이 단계적으로 설득되어 가는 과정과 장기공이 속아 넘어 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하게 된다. 작가는 권선징악의 이념이 더 이상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판단하고, 선악이 혼용된 인간의 욕망과 심리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과정에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하늘이 선악 행위에 상과 벌을 내리는 가치관에 대해 작가는 작품 속 등장인물과 비평가의 입을 빌려 여러 번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신진황은 류순정의 사기 행각에 대해 하늘이 너를 돕지 않으리라는 말로 여러 번 경고하고 있지만,<sup>30)</sup> 이는 조금도 류순정의 계획을 막지 못하고 사기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된다.<sup>31)</sup> 선과 악의 구분으로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 사기가 횡행하고 윤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작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함 많은 우리 인생이 역마(驛馬)처럼 빨리 지나가거늘, 아무리 풍악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 비단으로 눈을 호사하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을 달게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낙을 누리지 못함이 한스러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로 일과를 삼고 슬픔과 탄식으로 가계家を 삼겠는가?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계획을 세워본 것이네. 그래서 집의 하인들을 새벽에 큰길로 내보내 잘났고 못났고 귀하고 천하고를 가릴 것 없이 처음 만나는 젊은 남자를 기어코 맞아다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려고 하였네. 그런데 내 여식과 군 사이에 의외로 월로의 숙연이 있어 이처럼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구먼, 혼자된 여식을 어여뻐 여겨 일생 건줄을 받도록 해주기 바랄 따름이네.”<sup>32)</sup>

29) 작품 속에는 장수과의 삶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신진황으로 대변되고 있지만, 그 수위는 미미한 편이다.

30) “天必不祚你.” <장수과전>, 503면; “天不祚你, 天不祚你.” <장수과전>, 504면.

31) 또한 장수과가 무리들에게 은혜를 보답할 것을 약속하며, “제가 만약 식언을 한다면 하늘이 제 몸에 벼락을 칠 것이외다”라고 하고 있지만, 류순정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종이에 써서 증빙 문서로 만들어놓고 있다. 목숨과 하늘을 두고 하는 맹세가 문서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장수과전>, 322면 참조.

32) “缺陷世界, 迅如流駛, 雖絲肉以醒耳, 錦繡以侈眼, 膏腴以悅口, 猶恨取樂無多. 余又何故, 獨以清淚爲日用, 哀怨爲家計也哉? 事到窮迫, 計出無奈. 乃使僮僕, 晨候天街, 毋論賢愚貴賤, 必以初逢一少年丈夫, 極力邀致, 以占佳緣. 不意郎君與微息, 宿繫赤繩, 湊合甚巧. 萬望憐其寡勞, 使奉巾櫛.” <채생기우>, 『이조한문단편집』 4, 192면.

남은 세월 감각기관을 최대한 즐겁게 한다 해도 더 많은 낙을 누리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며, 현세를 즐기자는 김령의 말은 이전의 검소와 청렴을 숭상하던 가치관과 천양지차이다. 더하여 그는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여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다. 완고한 채노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때도, 조금씩 베푸는 수위를 높여가며, 그의 거부감을 해소해간다. 채노인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김령의 생각에 동화되고 부를 즐기는 것을 받아들인다.<sup>33)</sup> 류순정 역시 장기공을 속여 재물을 얻으면 한번 진탕 먹고 마셔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생각뿐이다.<sup>34)</sup> 그러나 그 속임수의 방식은 주할멈과 이정을 끌어들이며, 장생이 최랑의 미모에 넋이 나가게 한 후 재물을 스스로 바치게 만들고, 최랑 이모의 거짓 부고로 시간을 끄는 등 완급을 조절하는 치밀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물 형상을 통해 작가는 달라진 삶의 방식과 자세를 고민하며, 당시 사회 규범에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욕망을 도외시하는 방식도, 욕망에 집착하는 방식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2. 규범의 타파와 상호교환 관계의 수립

작가는 두 작품에서 모두 재가를 허용할 것과 신분을 초월한 결연의 유용성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과부를 지켜본 부친이나 과부 자신의 시점으로 그 괴로운 처지와 재가의 필요에 대해 길게 서술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다.

A) 다만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더니, 남의 폐백을 받고 미처 혼례도 치르기 전에 사위될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청춘에 공방을 지키는 형상이 더없이 가련하다네. 하지만 예법에 지키는 바가 있고 이목에 구애가 되어 시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어언 3년이 흘렀네. **여식이 간밤에 문득 애처로이 흐느끼는데 소리소리 한을 머금었고 마디마디 간장을 예는 듯하여** 길 가는 사람이라도 눈물을 적시지 않을 수 없겠거늘, 하물며 나의 일점혈육이 오직 이 여식뿐인 데야. 하루

33) “나의 여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으랴! 불과 손가락 한번 텅길 동안이지. 하필 사서 고생할 거야 무어 있겠는가!” <채생기우>, 32면.

34) “내가 저놈의 재물을 몽땅 우리 수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사장에서 우리가 한번 진탕 먹고 마시는 재원으로 삼고자 한다.” <장수과전>, 317면.

를 참고 보면 하루의 시름이라, 백년을 참고 보면 백년 동안 낙을 잃을 것일세.<sup>35)</sup>

B) 저는 절의를 귀히 여기고 음행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서울에 경박자들이 밤낮으로 넘보고 덤벼들어 괴롭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제 신세가 끝내 힘센 자에게 능욕당하는 일을 면치 못할까 싶어 **항시 몸이 가시에 찢리는 듯했지요.** 백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번듯한 남자를 잘 택해서 굳건한 성루의 기치를 세워 저들 무리가 감히 넘겨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 바라건대 마나님은 저를 위하여 천하의 의기 있는 남자를 하나 구해주어 일생토록 의지하여 잘 지내게 되었으면 합니다.<sup>36)</sup>

A의 경우 김령이 딸의 울음소리를 묘사하는 대목이고, B의 경우 최랑이 여성 자신의 목소리로 과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두 작품에서 과부는 재물이 많더라도 고통과 외로움, 외부인에게 능욕할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용문에서는 재가를 통해 과부의 외롭고 위태로운 삶이 행복과 안정을 찾는 길처럼 형상화되고 있어, 이현기가 과부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규범과 윤리에 의해 여성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부당하게 막혀 있다는 인식과도 통한다.

이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중인 집안과 양반 집안의 신분을 넘은 혼인에 대한 설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유한 중인의 딸이 몰락 양반의 소실로 들어가면서, 중인 집안에서는 양반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며, 양반 집안에서는 소실에게 인간적인 대우와 감사에 기반을 둔 존중을 돌려주는 상호교환 형태이다. 부귀가의 소실이 된다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든 받지 않든 주변의 원망과 모욕을 온몸에 받게 되는 형국이므로, 집안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빈곤한 가문을 선택한 것이 라 하겠다.<sup>37)</sup> <채생기우>의 경우, 채생의 집안식구가 의식주를 모두 김령

35) “而但身外專有一女，受人麗皮，未趁喬禮，而夫婿遽夭，青春空閨，情事遽憐，而禮守有防，瞻聆有碍，未便他適，奄至三稔。女忽於前宵，悲號哀鳴，聲聲吞恨，寸寸斷腸，雖行路之人，亦當爲之傷感。矧余一點骨肉，都寄此女，一日忍見，輒惹一日之愁，百年忍見，便無百年之樂。” <채생기우>, 192면.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845~846면.

36) “小侄非不貴義愛淫，而但長女輕薄兒日夜穿驗，困惱萬端。自料身世終不免健兒強汚，恒若芒刺及身，百爾緬思，不得不另卜善男，堅壘立幟，使彼輩不得正視。望姐姐爲俺求天下有心人，以期百年無憾。” <장수과전>, 505면.

37) “綺紈子弟，內有妬妻，外多嬖姬，一朝眷戀，一朝踈棄。眷戀則其父母兄弟，埋怨妾身，踈棄則其

의 집안에 의지하여 감격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고, 김량은 연회를 베풀어 시부모와 안팎 하인들에게 두루 환심을 얻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장수과전>에는 최랑이 가난한 양반의 후예로 처(妻)가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들어 장생을 택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설정은 중인 집안이 부귀를 획득했다라도, 양반에 비해 인간적인 대우가 결핍되어 있었던 시대 상황을 드러낸다. 신분질서가 아직 남아 있어 중인 집안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양반 집안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소실로 들어가야 했으며, 그 과정도 중인 집안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는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나, 아직 붕괴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인간의 행복이 부귀보다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인간관계에서 유래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채생의 집안에서 볼 수 있듯 생계의 기본적 충족 역시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김령은 부귀 자체만으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부귀와 세력 및 호감을 사는 능력 등을 이용하여 딸에게 남편과 울타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 중인 계층을 배우자로 택할 경우 부귀한 권력자에게 언제든지 횡액을 당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장수과전>에서는 북촌의 이공자가 부형의 권세를 믿고 자신의 소실이 되라며 최랑에게 겁박을 하고, 그를 거부할 경우 만 가지로 괴롭히며 관에 무고해 여인을 관비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는다는 최랑의 증언이 등장한다.<sup>39)</sup> 어느 정도 부유함이 보장된 중인 가문이라 하여도, 그 가문의 안정성은 양반 가문에 비할 수 없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0)</sup>

『기리총화』뿐 아니라 여러 한문단편에는 신분이 다른 집안이 인연을 맺어 한쪽은 지역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다른 쪽은 부유함을 얻게 되는 등의 서사 설정이 등장한다.<sup>41)</sup> 이는 규범과 신분 제도를 넘어 서로가 결핍

奴婢庄獲，侮辱妾身，此豈纏跡之地也。(非但女子之明見，實是萬古之確論)” <장수과전>, 505면.

38) 물론 <장수과전>에서 이 혼인은 속임수의 일환으로 설정된 것이다. 작품 중 최랑은 실상 이정의 첩실로, 류순정 및 이정과 매파, 관가와 결탁하여 장수과를 욕보이는 데 참여하고 있다.

39) <장수과전>, 335면. 이는 장수과를 속이기 위한 최랑의 거짓말이지만, 부유한 과부에 대한 당시 세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40) 김령 역시 자신의 재물로써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그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면 큰 죄를 얻게 될 수도 있다며 채생에게 입단속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채생기우>, 20면.

41) 『金安國』(『東廂紀纂』, 『이조한문단편집』 2, 120-137면)은 글을 못하는 양반과 좌수 딸이

된 것을 채워주고 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받는 방식의 인간관계가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장수과가 바라는 일방적인 은혜나 호의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 IV. 결론

<채생기우>의 김령과 <장수과전>의 류순정이 비상한 머리로 체계적인 설득 전략을 통해 몰락 양반을 좌지우지하는 양상은, 중세시대에 중시되었던 체면과 윤리가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합리성과 설득력이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생존 능력으로 대두했음을 보여준다.

김령의 경우 딸의 안위를 위해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며, 류순정의 경우 공권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그의 사기에 많은 이들이 공조하게 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완고하게 과거의 규범을 고수하거나 욕망에 집착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선악과 하늘의 규범을 넘어 변화하는 자본과 욕망의 시대에 적응한 새로운 주인공으로 형상화된다.

두 작품을 함께 고찰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가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는 신분제가 흔들리고 자본과 욕망이 중세의 체면과 윤리 가치를 흔드는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된 시기에 작가는 여러 전형적 인물상을 통해 욕망의 긍정과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범을 벗어난 상호교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혼인 관계를 맺은 후 좌수 딸의 지도로 글을 배우게 되어 양반은 과거 급제하고 좌수 딸은 시가에서 인정을 받게 된 이야기이다. 『기리총화』에 수록된 『崔承宣傳』(『이조한문단편집』 2, 207~217면)은 몰락 양반의 종 막동이 도망하여 신분 세탁을 한 후 찾아온 주인집 아들에게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재물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두 경우 모두 상대가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고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박지원, 『연암집』 1, 한국문집총간본.  
 정약용, 『여유당전서』, 한국문집총간본.  
 박희병, 標點·校釋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이우성·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 창비, 2018.  
 임형택 편,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 2. 논문

- 권순궁, 「이옥 전의 시정세대 묘사와 풍자」, 『한문교육연구』 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271~291면.  
 권혁화, 「〈결방연이팔낭자〉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상조,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가의 양상과 의미」, 『漢文學論集』 4, 근역한문학회, 1986, 211~242면.  
 김수영,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白話) 수용 양상」, 『국문학연구』 29, 국문학회, 2014, 151~177면.  
 박희병, 「『청구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1.  
 李文奎, 「朝鮮 後期 서울 市井人의 生活相과 새로운 志向 意識」, 『서울학연구』 5,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5, 105~142면.  
 이승은, 「『綺里叢話』 소재 각화의 서사기법 다변화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 127~152면.  
 이승현, 「『기리총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신성, 「한문단편 『金令』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 한국한문학회, 1978, 199~226면.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 - 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9~42.  
 장영희, 「〈結芳緣二八娘子〉의 대립구도와 그 의미」,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008, 967~988면.  
 정솔미, 「『張守果傳』의 형식적 특징과 주제의식」,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137~173면.  
 최광석, 「〈結芳緣二八娘子〉의 구조와 시대적 의미」, 『문화와 융합』 18, 한국문화융합학회, 1997, 161~184면.



## Ways to Survive in the Age of Capital and Desire

- A study of *Chaesaenggiwoo*(蔡生奇遇) and *Jangsugwajeon*(張守果傳) -

Kang, Hye-kyu

The cases of Kim Ryeong in *Chaesaenggiwoo* and Ryu Soon Jeong in *Jangsugwajeon* controlling the fallen upper class at their own will through extraordinary brains and step-by-step persuasion strategies show that decency and ethics, which were emphasized in the Middle Ages, no longer have their power and that rationality and persuasiveness have emerged as the abilities necessary for survival in the new era. In the case of Kim Ryeong, he works secretly for the safety of his daughter, and in the case of Ryu Soon Jeong, he puts the public power on his side to involve many people to cooperate in the scheme. In an era of changes, they play their role as critics of those who stubbornly adhere to the old norms or pursue their desires irrationally as well as being described as new types of people transcending the norms of good or bad and heaven adapted to the changing era of capital and desire.

By comparing the two works, a common theme that appears in both can be found. At that time, the class system was shaken, and modern capital and desire overturned decency and ethical norms of the Middle Ages. In this changing era, artist Lee Hyun Gi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desire and reason through several typical figures and insists on reciprocal human relationship that transcends norms and institutions.

Keywords: Lee Hyun Gi, Girichonghwa, *Chaesaenggiwoo*, *Jangsugwajeon*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계재결정: 2022. 5. 10.

